

박혁거세와 알영

글 | 이한

그림 | 이소리

글 | 이한

그림 | 이소리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먼 옛날 한반도의 남쪽에 서라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섯 마을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임금 없이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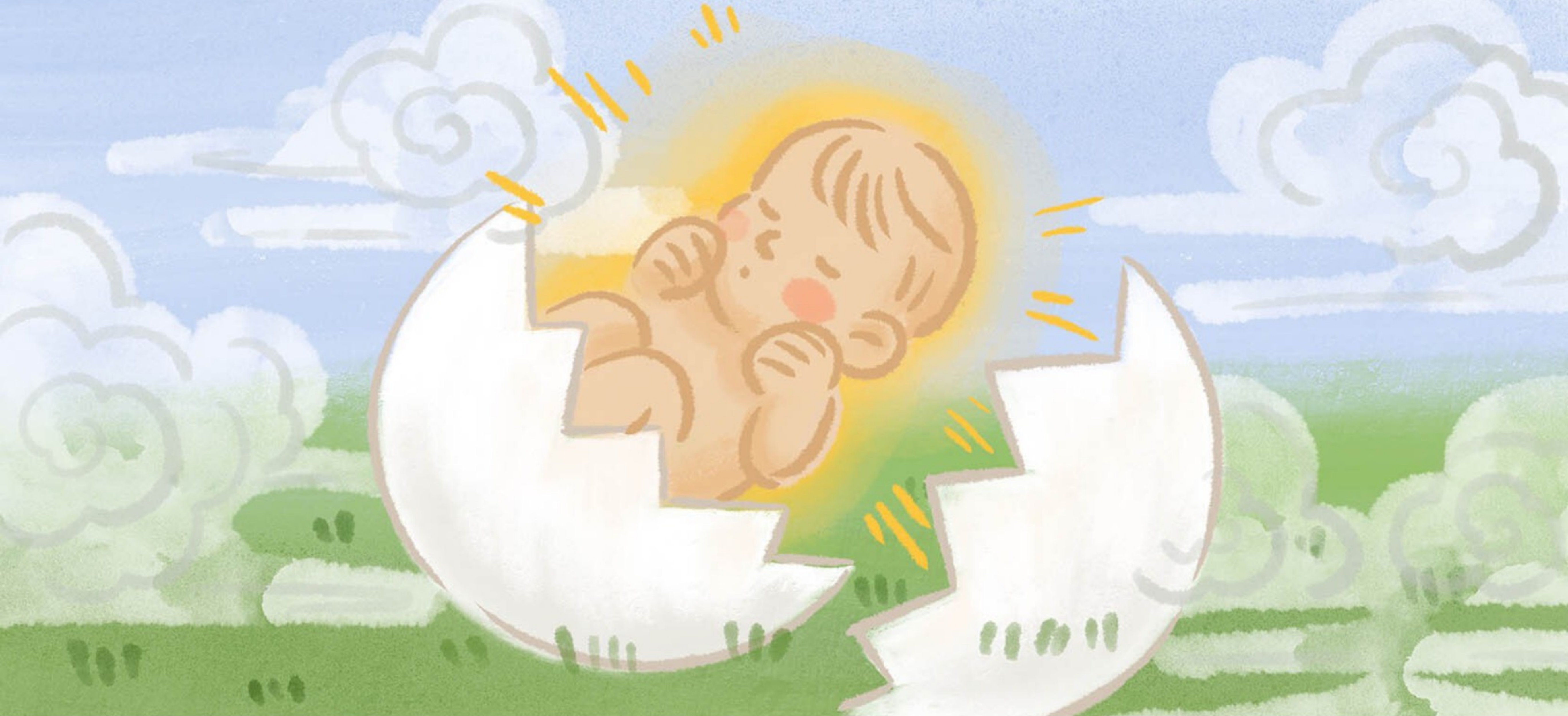
어느 날, 여섯 마을의 촌장들은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임금을 세우자!”
그런데 훌륭한 임금을 어디서 찾을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말이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촌장들은 말이 내려온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말은 우물가에 앉아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이 깨어지며 한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아기의 몸에서는
빛이 났고 새와 짐승, 해와 달도 아기를 보고 반겼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박씨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혁거세입니다.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한편, 알영 우물 옆에는 닭의 머리를 한 용, 계룡이 나타났습니다. 계룡은 닭 부리를 가진 여자아이를 낳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닭 부리가 떨어지자 여자아이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우물 이름을 따서 알영이라고 불렸습니다.



박혁거세와 알영은 신라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 박씨의 시조입니다.

“박혁거세와 알영”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